감사로 여는 진정한 부요의 삶!
본문: 고후 6:10-13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부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빈곤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1918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매우 힘들고 어수선할 때입니다.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스웨덴 이민자 ’에릭 엔스트롬‘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진관에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남루한 옷을 입고, 신발 먼지떨이를 팔러 사진관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지친 모습의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무척 시장했던지 그는 미안하지만 차 한 잔 얻어 마시자고 요청했고, 엔스트롬씨는 빵과 스프를 조금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보잘 것 없는 빵과 스프가 놓인 테이블에 앉아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인 엔스트롬 씨는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갑자기 ‘큰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노인을 보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u>이 노인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구나</u>.”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감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노인의 소박한 감사기도 속에서 노인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사진사 아버지가 찍은 이 흑백 사진을 보고, 결혼한 딸, ‘론다 나이버그’도 큰 감동을 받아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감사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작품 ‘은혜 The Grace‘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는 작품일 것입니다. 많은 미국 가정의 벽에 걸려있는 작품입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귀리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기도를 드리는 이 사진과 유화는 2002년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빈곤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결핍의 시선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우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헬, καρδία, 카르디아,heart)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13절 “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원망과 불평은 사람의 심정(헬, σπλάγχνον, 스플랑크논, 내장)을 좁아지게 만들지만, 하나님과 이웃이 베푼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태도는 좁아진 마음을 보다 넓게 합니다.
나아가 겉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고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u>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u>.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내면의 풍요로움과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삶을 부요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웃까지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1. 첫째로 감사는 가장 먼저 '결핍의 눈'을 감기고 '은혜의 눈'을 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내가 가지지 못한 1%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99%를 보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적들의 침략으로 밀어 닥치는 환난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닥칠 6가지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합 3:17-18).
그렇습니다. 감사는 일차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의 렌즈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림으로 은혜의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2. 둘째로 감사는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며 자족을 노래했습니다(빌 4:11-12).
세상의 부요함은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세운 부요함은 고난과 결핍조차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단단한 반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부 서원을 드렸습니다(창 28:20-22).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혹시 불에 타 죽을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무조건적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단 3:17-18).
우리 모두 조건부 감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를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그러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부요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3, 셋째로 감사는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심지어 바꾸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후반 “...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다 해조류가 그를 감싸고 물고기의 위액이 그를 덮어 녹여 죽음이 코 앞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냈습니다.
“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욘 2:9-10).

4. 마지막으로 감사는 내 안에 머물지 않고 타인 또한 부요케 만들도록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중반 “...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을 향한 위로, 격려, 나눔이 흘러 넘칩니다. 진짜 부자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벳새다 평원에서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요 6:11). gave thanks
우리 모두 자신은 물론, 가족들과 친지, 주위 이웃들을 위해 감사드림으로 그들 또한 부요케 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부요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가장 부요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왕자마마, 공주마마입니다.
그러나 혹시 영적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 육신의 부만 보고 지내지는 않으시는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주님]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하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부요한 자이시나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으로도 부요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우리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미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진실로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감사로 말미암은 현실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 또한 부요하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